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때 일시 인출 70%

(주택담보대출)

금융위, 현재 최대 50%에서 20%p 확대

60세이상 고령자들 상환부담 줄어든 듯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한 번에 돈을 뽑을 수 있는 한도가 최대 70%까지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일시 인출 가능금액이 커짐에 따라 다수의 고령자들이 주담대 상환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생애 주기·소득별 가계부채 해소를 돕기 위해 이달 25일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도입한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40~50대를 위한 '보급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의 혜택이 커졌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담대를 가진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가입할 경우 일부를 대출 상환에 활용하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현재는 일시 인출 가능한도가 최대 50%로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70%까지 확대된다. 그만큼 주담대 상환여력에 커지는 셈이다.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와 인출한도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만약 3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60세가 최대인 70%까지 인출을 받는다면 손에 8610만원을 쥌 수 있다. 최대 인출한도 50%(6270만원)일 경우 보다 2340만원을 더 얻는다.

같은 조건(주택 3억원·인출한도 70%) 하에서 70세는 1억1361만원, 80세는 1억4558만원, 90세는 1억7535만원씩을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를 이용 중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잔액 평균이 69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주택연금을 통해 고령층 주담대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연금이 부채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새로운 관행 정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급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은 보급자리론 이용자나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담대에서 보급자리론으로 전환하

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는 상품이다.

신규 보급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추후 주택연금에 가입을 약속하면 보급자리론 금리를 15bp 우대받는다.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담대를 주택연금 가입이 약정된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급자리론으로 전환해도 15b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산정 이자율을 낮춘 우대형 주택연금이 제공된다.

가입대상은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로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다.

기존 주택연금보다 월지급금이 8~15% 정도 높는데 고령일수록 액수가 더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금융위는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되면 2025년까지 고령층 가계부채 부담이 22조 2000만원 감소되고 누적가입자는 현재 2만 6000명에서 48만명까지 매년 3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진수기자



실리콘밸리엔 누가

2016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콘퍼런스에서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이 12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 네이버 그린팩토리 컨퍼런스홀에서 네이버가 주관하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주최하는 2016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인진수기자

국제유가 상승에도 지난달 수출물가 하락

지난달 국제유가가 올랐음에도 원·달러 환율 하락의 여파로 수출물가지수가 떨어졌다. 수입물가지수는 소폭 상승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원화기준 잠정치)는 전달(81.96) 대비 1.5% 하락한 80.72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5% 떨어졌다. 통상적으로 달러 등 수출업체들이 실제 거래에 사용하는 계약통화를 기준으로 하면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라 수출물가지수도 반등한다.

3월 두바이유가는 월평균 배럴당 60달러 전달 대비 22.1% 증가,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지수도 전달보다 0.8% 상승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이 국제유가 상승의 효과를 상쇄했다. 3월 원·달러 평균환율은 1188.21원으로 전달(1217.35원) 대비 2.4% 하락했다.

원화기준으로 농림수산업의 수출물가지수는 전달 대비 1.0% 올랐다. 공산품은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1.5%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잠정치)는 76.2로 전달(76.17)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7.7% 하락했다. 계약통화를 기준으로 한 수입물가지수는 22% 상승했다. 원화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원유 등 공산품을 중심으로 전달 대비 5.6% 상승했다.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의 중간재는 1.1%,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1.7%, 1.8% 떨어졌다.

/인진수기자

선거일 정당 사무실 주변 통화량 2.5배 증가

선거 당일 개표소와 정당 사무실 주변 지국 통화량이 평소보다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선거일은 임시휴무라 전국 통화량은 평소보다 소폭 감소한다. 하지만 전국 주요 개표소와 정당 사무실 주변 지국은 평소보다 트래픽이 최대 2.5배 증가한다.

통신사서비스업들도 비상 사태에 대비해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SK텔레콤은 국회의원선거 특별 소통 대책을 마련했다. SK텔레콤은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개표 마감 시간까지 특별소통상황실을 운영한다.

KT는 전국 351개의 투표소를 포함해 252개의 개표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용번호 1300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통신망 운영을 지원한다. KT는 총선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선거통신 안정지원 TF'를 운영하고 있다.

/인진수기자

'태양의 후예' 인기로 출연자들 광고모델 러브콜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폭발적 인기를 끌자 광고계가 출연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유시진 대위 송중기(31)'는 화장품 브랜드 포렌코즈의 모델로 발탁됐다. 12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송중기의 깨끗하고 정직한 이미지와 태양의 후예에서 더해진 편안하면서도 완벽한 모습이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해 모델로 선정됐다. 해외 마케팅을 고려 중인 포렌코즈는 송중기를 앞세워 중국, 홍콩, 미국 등 해외 10여개국에 진출할 예정이다. 윤명주 중위 김지원(24)은 게임 모델이 됐다. 소속사 김광엔터테인먼트는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글로벌 RPG 원더택틱스의 공식 모델이 됐다"고 말했다. "밝고 건강한 이미지의 김지원이 아끼지 않은 캐릭터들의 차별화된 전부를 즐길 수 있는 원더택틱스의 공식 모델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홍보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고 컴투스 관계자는 전했다. 화장품 주얼리에 이어 게임 모델까지 꿰차며 광고계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인진수기자

국내 서비스업 크려면 정부 맞춤형 정책 필요

현대연, 수요·공급 현황 따라 '성장', '취약', '중간' 업종으로 구분... 지원 차별화해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서비스업 수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58.5%, 2008년 61.2%, 2014년 59.4%로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취업자 수에서 서비스업의 비중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4년 69.2%까지 올랐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내부 업종별로는

생산성 및 고용 비중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 금융·보험, 교육, 문화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고 고용 비중이 떨어지지만 음식·숙박업, 유통서비스 등의 소비자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낮고 고용 비중이 높다.

부동산·임대업을 포괄하는 생산자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높고 고용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요·공급 현황 및 종합평가를 통해 각 서비스업을 성장업종, 취약업종, 중간업종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보건복지업은 성장업종, ▲금융·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도매·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은 취약업종, ▲문화·가터서비스업 ▲운수·보관업 ▲음식·숙박업은 중간업종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업종은 공급 양호와 수요 양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종 취약업종은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에 해당하는 업종 중간업종은 공급 혹은 수요 측면 중 한 부분만 양호한 업종을 각각 의미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산업건설팀실 연구원은 "성장업종과 취약업종 중간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은 모두 정부의 유망서비스업에 속해 있다"며 "서비스업의 발전과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방향에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진수 기자

신한銀 로보어드바이저 시범출시

신한은행은 로보어드바이저 시범서비스인 'S로보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S로보 플러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펀드 추천 서비스다. 고객 입장에서 별도의 로그인 없이 간단한 설문 입력만으로 자신의 투자성향 지표와 맞춤형 펀드 포트폴리오 자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번 서비스는 신한은행의 모바일 플랫폼인 신한뱅크와 씨넵뱅크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시범서비스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로보어드바이저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S로보 플러스는 기존 포트폴리오이론이나 계량분석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 인공지능 알고리즘(AI)에 기반을 둔 진정한 의미의 로보 자선펀드 서비스"라며 "시범서비스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로보 어드바이저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진수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